

# 디지털 날염기술 국산화 추진

산자부, 염색·화학 공동개발 지원 ... 다품종 소량생산 적합

산업자원부는 세계 시장규모가 한해 200억달러에 달하는 디지털날염(DTP)산업의 발전을 위해 2005년부터 DTP 기술 국산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DTP 기술 국산화를 위해 염색, 기계, 화학 등 관련업계의 공동 기술개발을 피하며 수요 단체별로 DTP 시범센터를 지정해 운영키로 했다. 또 생산현장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디자인 개발 지원, 제품 전시장 설치를 지원할 방침이다.

디지털 날염은 종전의 복잡한 날염 공정 대신 IT기술을 접목한 신공정으로 99%의 공해 감축, 공정 단축이 가능하고 다품종 소량 생산체제에 적합하나 국내에 보급된 장비는 2003년 213대로 세계시장의 1만2454대 중 2%에 불과하다.

<Chemical Journal 2004/03/19>